



지난 5월 3일, 2호선 강남역 주변 제일생명 옆에 교보문고 강남점이 문을 열었다. 강남 지역 지식문화 주무대를 목표로 하는 교보문고 강남점은 세련된 도시풍 서점으로 독자의 눈을 끈다. 책과 사람의 만남, 그 여유를 만드는 공간인 교보문고 강남점의 곳곳을 살펴본다.



책과 사람이 만나는 또 다른 지식 마당





사람과 책, 사람과 사람을 위한 공간

교보타워는 벽돌색의 쌍둥이 건물로 특유의 H 형 브릿지 건물이다. 교보문고 남성호 홍보팀장은 이 외관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과거와 미래의 만남'을 의미한다며 강남역의 번잡성과 차별화하기 위해 스페인의 유명 건축가 '마리오 보타'에게 설계를 의뢰, 완공했다고 밝혔다. 마리오 보타의 향기가 우러나는 건물에서 이 지적인 분위기와 강남역 특유의 화려함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교통의 요지, 인파가 북적이는 강남을 고려해 설계했다"는 마리오 보타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구에 착륙하는 우주선을 모티프로 삼은 서점 내부도 고급스럽다. '미지와 만남'을 주제로 꾸민 서점 내부가 우주를 상징하는 원형의 틀로 이루어져 있어 예술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강남점의 장점은 여유로운 공간활용이다. 전체 면적은 3,600평. 강남점은 지하 1,2층을 모두 서점으로 운영한다. 지하 1층에 분야별 도서를 소개하고 지하 2층에서는 어린이책 코너와 음반매장 및 문화시설 등을 운영한다.

광화문점이 50만 종, 23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면 강남점은 35만 종, 20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서가와 서가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 책 보유량을 과감하게 줄인 것이다. 어린이책 코너의 여유로운 서가 풍경이 이 시도를 잘 반영한다. 어린이책 코너의 여유로운 서가 풍경이 이 시도를 잘 반영한다. 어린이책 코너의 여유로운 서가 풍경이 이 시도를 잘 반영한다. 어린이책 코너의 여유로운 서가 풍경이 이 시도를 잘 반영한다. 어린이책 코너의 여유로운 서가 풍경이 이 시도를 잘 반영한다.

독자들을 향한 특화 아이디어로 차별화

강남 교보문고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점이다. 여기에다 규모 못지않게 특화된 독자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북마스터 상담. 이는 교보문고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북마스터들이 독

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북마스터들은 독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책을 추천하고, 독서 상담을 주업무로 한다. 이는 필요한 책을 고르기 힘들다는 대형서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면서 고객에게 맞춤형 책 정보를 제공하려는 새로운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직원의 도서 계산 착오, 약속 불이행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자동화 프로그램도 교보문고 강남점만의 특화 콘텐츠 중 하나다. 강남점은 독자가 직접 검색하고 출력까지 가능한 '첨단 도서 검색대'를 마련했다. 북마스터에게 추천받은 도서를 검색한 독자는 이 검색대를 통해 서가정보 및 정확한 위치정보까지 제공받는다. 도서유통 역시 기존 방법과는 다르다.

강남점 직원들은 도서를 수레로 옮기지 않는다. 영업점 벽면 서가 후면에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컨베이어는 분야별 도서를 자동으로 옮겨 직원들이 도서를 수레로 옮기는 불편을 덜어준다. 그리고 독자에게는 조용한 분위기의 서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몫을 한다. 이 유통 시스템은 최단 시간에 최대 도서물량을 처리한다는 데서 도서유통의 효율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을 문화의 공간으로

교보문고 강남점의 컨셉은 '만남'이다. 공간 곳곳이 책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상징하고 있다. 실무진은 "책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독자 곁에 다가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그렇지만 먹거리, 놀거리로 가득한 강남역이 교보타워로 인해 문화의 빛, 지식의 빛을 밝힐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심에서 지식 발견의 여유를 선사하는 지식의 샘, 교보문고 강남점이 현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지 그 미래상이 주목된다. **이진**

김청연 기자